

ASAN REPORT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장지향

2018년 3월



Asan Report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장지향

2018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저자

장 지 향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연구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화, 국제개발협력 등이 있다. 저서로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Palgrave Macmillan 2013), 주요 논문으로 “에르도안의 정치적 탐욕이 부른 터키 무슬림 민주주의의 후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 “세계화 시기 자본의 민주적 함의: 이슬람 자본의 성장에 따른 무슬림 포괄 정당의 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2010),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 (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07
I.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의 불가측성	09
1. 공포정치와 독재자의 오관	10
2. 엘리트의 집단적 눈치보기와 변심	11
3. 시위 선도그룹의 등장과 여론 확산	12
4. 사후 인과관계 추적의 오류	13
II.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과 샤 왕정의 몰락	16
1. 철권통치자 샤의 유화책	17
2. 빠르게 흔들리는 샤의 엘리트	18
3. 성직자 전위그룹과 반샤 시위의 확산	19
4.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20
III. 2011년 아랍의 봄 혁명과 튀니지·이집트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20
1. 당황한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강경책 철회	22
2. 튀니지·이집트 엘리트의 선택: 독재자와 거리 두기	23
3. 튀니지 지방 노조원과 이집트 인터넷 활동가의 시위 선도	24
4. 아랍의 봄 혁명 이후	26
IV. 북한 정권 미래의 불가측성: 여론 부재와 독재의 극적 붕괴	27
나가며	32
참고문헌	35

들어가며

이 보고서는 혁명 발발과 뒤이은 독재 몰락이 왜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인지 분석한다. 혁명은 예고 없이 일어나 절대권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독재는 억압과 감시, 통제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정확한 여론 형성을 막는다. 따라서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는 물론 시민들까지도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릴 수 없다. 혁명 직전의 전조현상도 눈치채지 못한다.

1979년 이란,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혁명과 독재의 몰락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미국 CIA는 이란 혁명 발발 6개월 전의 보고서에서 “샤의 권력이 한층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도 이란 정치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샤가 이란을 빠져나가기 4일 전에 작성된 보고서 역시 “샤의 반대 세력들은 서로 경쟁하느라 함께 저항을 조직할 수 없다. 최근 일련의 반샤 시위가 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Mousavian and Shahidsaless 2014, Richelson 1997). CIA는 빅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 대한 예측 보고서도 심하게 빗나갔다고 회고했다(Morell and Harlow 2015).

혁명 이전의 상황은 독재 체제가 임계점으로 치달아 폭발 직전의 압박을 겨우 버티는 단계이다. 공안정치, 인권유린, 부정부패, 무능과 비효율성, 불평등과 빈부격차, 생활고와 실업 등 독재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은 반정부 혁명을 일어나게 할 충분한 조건들이다. 하지만 독재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체제의 약점일 수 있으나 정권 몰락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정권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은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가 체제의 인위적 안정성과 실제의 취약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최정에 비밀경찰과 군이 주도한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철권 공포정치 하에서 시민들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철저히 숨기고 거짓 충성을 보였다. 지배 엘리트도 동료의 변심 가능성을 쉽 없이 체크하면서 충성 경쟁을 벌였다. 불안하나마 유지되는 협력과 안정 속에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 시위 선도그룹, 일반 시위대, 미국 정부 어느 누구도 장기 독재자가 비무장 시위대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혁명의 출발은 독재 정권이 돌발 사고로 국가 장악력과 여론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다. 비

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독재들 가운데 혁명 발발의 여부와 선후가 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혁명은 일단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된다. 우발적 계기로 시민들의 불만이 붓물 터지듯 나오면 독재자는 예상치 못한 거센 분노에 당황하기 시작한다. 장기 독재의 여론 통제와 감시로 인해 독재자는 자신의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 냉혹하던 독재자가 우왕좌왕하며 단호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면 엘리트는 정권의 미래를 의심하고, 시위대는 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강경 대응이 아닌 유화책 카드를 꺼낸 독재자의 변화에 측근 엘리트와 시위대 모두 흔들리고 만다.

이때 측근 엘리트의 집단적 불안, 시위 선도그룹의 다발성 집회, 혁명 성공 여론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된다. 상호 의존적 눈치보기 구조에서 엘리트 한 명의 이탈 움직임은 주변 엘리트들에게 빠르게 전파된다. 일반 시민이 시위 참여를 두려워할 때 영웅적 소수가 시위를 이끌고 사람들을 독려한다. 점차 혁명 성공에 대한 확신이 번지면서 엘리트는 집단적 이탈, 시위대는 거센 저항을 시작한다. 이어 독재 몰락의 희망적 여론이 분기점을 향해 신속히 확산된다.

중동의 독재자 샤, 벤 알리, 무바라크 역시 숨가쁘게 진행된 혁명 과정에서 독재자의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장기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강경 엘리트 처벌과 내각 총사퇴를 단행했으며, 대국민 사과 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이는 엘리트가 기대했던 정권 수호의 결연한 의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독재자의 새로운 메시지는 측근 엘리트 간의 결속을 깨뜨렸고 결국 군부의 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샤, 벤 알리, 무바라크가 강력한 힘의 과시 대신 전향책을 발표하자 시위대는 더욱 과감히 독재자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대 조직화의 배후에는 독재의 폭력을 두려워 않는 이란 올라마 성직자, 튀니지 지방 노조원, 이집트의 인터넷 활동가 전위그룹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란과 아랍의 사례처럼 북한의 독재 역시 매우 극적인 모습을 띠며 붕괴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이 한 순간 긴장을 놓거나, 뜻밖의 오판을 할 경우 측근 엘리트의 불안이 시작될 것이다. 곧 엘리트와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계산과 눈치보기에 돌입할 것이다. 숙청이 난무하는 3대 세습 독재 하에서 엘리트의 충성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침묵하던 시민들 역시 새로운 여론에 맞춰 연쇄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이다. 여론 통제와 감시가 심할수록 불만의 분출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이어져 북한의 불안한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는 독재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다.

I.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의 불가측성

혁명은 매우 사소한 계기로 촉발돼 오래된 절대 권력을 갑작스럽게 몰락시킨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911년 중국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모두 전조현상 없이 일어나 전근대 체제를 순식간에 붕괴시켰다. 근대 이후에 일어난 1979년 이란 혁명, 1989년 동유럽 혁명, 2011년 아랍 혁명과 이에 따른 독재의 몰락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던 장기 독재는 예고 없이 발발한 혁명 앞에서 극적으로 무너졌다.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의 불가측성은 공포정치 하의 여론 부재와 왜곡에서 기인한다.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은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데 자유로운 의사 소통의 통제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통제와 억압의 정도가 심한 독재일수록 체제 저항의 시작과 조직적 확산, 정권의 몰락은 더욱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다. 정권에 대한 정확한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지배 세력은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며, 정권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알아채지 못한다. 체제 유지를 위해 억압과 감시 기제를 극도로 발달시킨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가 바로 그 공포정치 때문에 체제 전복을 꾀하는 혁명의 전조를 눈치 챌 수 없다는 것이 독재의 아이러니이다(장지향 2016a).

독재를 무너뜨린 혁명은 극적인 출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이미 체제 내에서 혁명 발발의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단지 체제 속성으로 인해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 시민 모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을 뿐이다. 체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이르렀어도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는 이를 깨닫지 못한 채 표면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확인했다(카너먼 2012, Kuran 1995, Taleb 2010). 지배 세력뿐만 아니라 혁명을 이끈 시민들 역시 정권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민들은 체제 유지 세력 앞에서 거짓 충성을 보일 수 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실제 불만은 폭발 직전의 상태로 억눌려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지 확실치 않았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적인 자리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비밀스럽게 토로할 수는 있었지만 사회 전반의 여론에 대해선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이 우연한 계기로 여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선 정권에 대한 깊은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시민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대다수 역시 정권에 대한 불만을 오랫동안 숨겨왔다는 걸 알게 되고, 반정부 시위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Kurzman 2004). 이때 독재자는 예기치 못한 거센 시위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갑작스런 태도 변경을 결정해 유화책을 시도한다. 독재자가 처음으로 보인 뜻밖의 선택은 측근 엘리트의 변심과 시위대의 확산, 극적인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독재 정권에 충격을 가하는 우발적 계기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오는 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그 파급력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체제 붕괴라는 극적 변화로 이어진다.

1. 공포정치와 독재자의 오판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의 충격적 사건을 이끄는 주요 행위자는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 시민이다. 이들은 혁명이 진행되는 긴박한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행동에 옮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독재자이다. 독재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측근 엘리트의 주관적 믿음과 불확실한 미래의 계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Bueno de Mesquita and Smith 2009). 결국 독재자의 정권 수호 의지 정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행위자들의 인센티브 구조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

독재자의 생존 전략은 엘리트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확실한 보상에 기반 한 철저한 통제다. 독재자는 충성스런 엘리트에게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고, 엘리트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믿음 하에 맹목적 충성을 경쟁한다. 그러나 최측근 엘리트일지라도 독재자의 보상은 철저히 현재의 필요에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냉혹하게 숙청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Axelrod 1984). 독재자와 엘리트의 관계는 매우 취약한 신뢰에 바탕하며 이는 정권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경우 극명해진다.

독재자의 처벌과 보상 전략은 엘리트끼리의 관계 설정에서도 결정적 요소이다. 독재 정권에서 엘리트의 선택은 다른 엘리트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독재자가 시위대 무력 진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경우, 엘리트는 다른 엘리트의 동참을 예상하고 자신 역시 탄압 대열에 적극 나선다. 그러나 독재자가 체제 수호에 대한 자신감을 잠시라도 상실했다고 보이면 엘리트 간의 협력은 바로 사라진다.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엘리트의 확신은 바로 독재자의 오판과 실책에 의해 결정된다(장지향 2016a).

독재자가 정권 수호에 대해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듯한 여지를 보일 경우 시민들 역시 빠르게 반응하며 더욱 거세게 저항한다. 혁명 직전의 상황이란 장기 독재가 중압감을 간신히

버티는 단계이고, 이때 독재자의 돌발적인 태도 변경은 체제 몰락의 촉매제가 된다.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독재자가 선택한 유화책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치적 억압이 약해지는 유화 국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상황이 일관되게 나쁘면 체념을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기대 수준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개선 정도가 높아진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서 시민들은 둘 사이의 간극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더욱 강하게 저항을 조직하게 된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저항은 거세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 나아지다가 나빠지는 경우 시민들은 높아진 기대 수준에 역행하는 현실에 더욱 크게 분노한다. 기대 수준과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좌절감과 손실감은 보다 거세진 저항의 조직화로 이어진다(Kahneman and Tversky 1979).

2. 엘리트의 집단적 눈치보기와 변심

작은 충격에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 간의 집단적 협력은 독재 유지에 큰 힘이 된다. 하지만 독재 정권의 엘리트는 주변 동료의 변심 가능성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협력을 유지한다. 눈치보기로 유지되는 집단 행동은 쉽게 변한다. 독재자의 선호를 잘못 예상할 경우 바로 숙청될 수 있는 체제에서 엘리트는 동료의 눈치를 치열하게 살피며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Bueno de Mesquita and Smith 2009).

독재자가 개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당의 집단 지배 시스템을 방해할 경우 측근 엘리트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동료 엘리트와 동맹을 맺은 후 세력균형을 통해 일인 지배의 공고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독재자의 개인 권력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판단되면 현상유지를 위해 충성 경쟁을 할 수 있다. 셋째, 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바로 이탈할 수 있다(한병진 2013). 세 번째 선택은 장기 독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측근 엘리트 대부분이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한 엘리트의 선택은 주변 동료 엘리트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계산에 달려 있다. 즉 엘리트 개인의 선택은 다른 엘리트의 결정에 대한 기대와 추측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다시 동료 엘리트의 선택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독재 정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때 엘리트의 계산과 선택은 한 방향으로 추세를 타기 마련이어서 개인의 자신감이 주변으로

이어지고 집단적으로 강해진다. 물론 엘리트 내부의 반목과 불신 역시 실망과 불안의 연쇄 작용으로 이어져 폭발적인 속도로 확산된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상호 의존적 눈치보기의 구조 하에서 엘리트의 자신감과 불안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친다.

측근 엘리트는 정권 지속성의 계산을 마친 후에야 충성을 결정하며, 이는 주변 동료가 비슷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냉혹하던 독재자가 망설이거나 장악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측근 엘리트는 주변 엘리트도 정권 수호에 소홀할 것이라 계산하고 자신 역시 살 길을 찾아 나선다. 한 명의 변심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 쉽 이 눈치보고 계산하던 주변 엘리트에게 신속하게 퍼져간다. 이어 집단적 믿음이 흔들리면서 엘리트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독재 정권은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혁명이 일어나 독재 정권이 약해지는 순간 측근 엘리트의 마지막 선택이 순식간에 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시위 선도그룹의 등장과 여론 확산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의 전략적 계산 못지않게 시위대의 선택도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기 독재 하에서 침묵했던 시민들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면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이러한 계산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는 바로 혁명 성공에 대한 집단적 믿음과 독재자의 국가 장악력 정도이다.

측근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시위대 역시 혁명 성공의 기대치를 두고 주변 시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시위 참여자가 한 명씩 늘어날수록 정권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점차 커지기 시작한다. 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록 참여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기대치 역시 점차 커지면서 시위는 탄력을 받는다. 혁명 성공에 대한 낙관적 여론이 분기점을 넘는 순간 혁명 참여로 얻는 혜택이 그 비용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은 빠르게 퍼지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아무리 독재 정권을 싫어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오랜 기간 이어온 억압과 감시의 공포 체제에 분연히 일어나 즉각 맞서기란 매우 어렵다. 반독재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기 전 시민들은 주위의 반응을 살피며 몸을 사리기 마련이다. 이렇듯 사람들 대부분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주저할 때 소수의 선도그룹이 일반 대중과는 다른 손익계산을 하면서 전면에 나선다. 이들 역시 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특별히 높게 보는 건 아

니다(Kuran 1995). 다만 이들 선도그룹은 지속되는 독재 하에서 치러야 할 비용을 매우 크게 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 선택을 한다.

시위 선도그룹은 일반 시민과 달리 공동체 내의 격려와 존경이라는 보상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일반 사람들에게 시위 참여시 치러야 할 비용은 당국에 체포돼 겪을 고초이고, 혜택은 독재 붕괴에서 발생할 이익일 것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시민들은 시위에 참여한다. 선도그룹에게는 같은 신념을 나누는 동료로부터 존경 받는 일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상이며 혁명의 성공 기대치와 별도로 고려되는 변수이다. 이러한 도덕적 보상이야말로 신념에 찬 혁명 전위그룹에게 위험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유인 요소이다.

소수의 선동가가 일단 시위를 이끌기 시작하면 일반 사람들의 기존 생각은 흔들린다. 시민들의 혁명 성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집단적으로 높아지면 점차 더 많은 참여자가 생긴다. 이때 장기간 폭압정치를 이어오던 독재자가 잠시라도 탄압을 늦추거나 유화책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바로 저항을 시작한다. 상황이 나아질 때 사람들은 조직적 자원을 더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성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 역시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저울질하고 맞춰왔던 지배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도 여론의 변화에 따라 폭발적 기세로 시위에 동참한다.

4. 사후 인과관계 추적의 오류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의 원인을 다르게 보는 이론도 있다. 혁명 전후 행위자들의 시간을 다투는 손익계산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변수로 보는 설명이다. 이 분석은 혁명 발발의 태생적 우발성이 아닌 필연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사후에 거꾸로 추적해 나열한다. 이들 구조주의 혹은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은 근대 혁명들의 원인들로 특정 사회 세력의 영향력 변화와 이로 인해 서서히 축적돼온 기존 세력관계의 불균형을 제시한다(Hall and Soskice 2001, Moore 1966,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Skocpol 1979).

구조주의에 따르면, 1979년 이란 혁명 발발과 샤 왕정체제 몰락의 원인은 전통시장 바자르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공동체의 조직력 상승, 이슬람 성직자 엘리트에 대한 탄압, 샤의 사적 후원망에서 온건 엘리트의 배제, 미국 정부의 샤 왕정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다(Keshavarian 2007, Kurzman 2004, Skocpol 1994). 당시 샤 체제는 비밀경찰 사바크(SAVAK)의 공

안정치, 공공분야의 비효율성, 부정부패의 만연 등 제 3세계 권위주의 정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샤의 후원 네트워크는 국가기구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군과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 직업성을 훼손했고 샤 개인은 외부 후원자 미국에 극단적으로 의존했다.

따라서 혁명의 필요조건이 성숙해가는 가운데 바자르 네트워크와 이슬람 공동체의 응집력 상승이 혁명의 조직화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1970년대 중반의 국제 유가 파동으로 인해 이란의 석유 의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도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됐다. 급속한 도시화로 새롭게 유입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성난 도시 빈민들은 바자르를 중심으로 반샤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Kruzman 2004). 여기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온건 엘리트 세력이 지도부로 가세해 광범위한 반체제 연합을 구성했다. 때마침 1977년 출범한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샤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구조적 요인은 왜 2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권위주의 왕정이 하필 1979년에 갑작스럽게 몰락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 왜 샤는 본격적인 시위가 일어난 지 1년도 못돼 부와 권력을 순순히 포기했는지, 왜 아무도 장기 독재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제공하지 못한다.

최근의 구조적 설명은 기존의 분석에 보다 역동적 시각을 추가하고자 군과 경찰의 시위대 유혈진압,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라는 상징적 구심체의 역할 등을 요인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 온 1978년 8월 시네마 렉스 화재, 9월 검은 금요일 사건은 강권기구의 미숙한 대응과 과잉 진압의 결과였다. 샤는 허둥거리며 책임자 처벌에 나섰으나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게다가 샤 체제에서 쫓겨나 파리에 망명 중인 호메이니는 반독재 저항에 순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심체였다. 그렇지만 이 변수들은 혁명의 촉발요소이지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혁명의 발발 직전 방아쇠 역할을 한 요인과 혁명을 실제로 이끈 근본적 원인은 구분해야 한다.

2011년 아랍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도 구조적 설명은 경제 저성장과 청년 실업, 무능한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 고조를 지적했다. 분노한 아랍 청년들은 SNS의 활성화 덕분에 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해 혁명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2010년 12월 튀니지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젊은 노점상이 정부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며 분신을 기도했다. 노점상은 대학 중퇴 후 길거리에서 야채와 과일을 팔며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시청

의 고압적 단속과 뒷돈 요구 횡포에 시달렸다. 어느 날 압수된 노점상 도구를 되찾으려 시청에 들렀다가 심한 모욕을 당했고 이를 참지 못해 청사 앞에서 분신을 했다. 사촌이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은 후 SNS에 올리자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시작됐고, 이웃 나라들에 까지 도미노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이 역시 20-30여 년간 지속된 튀니지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와 이집트 무바라크(Hosni Mubarak)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붕괴 타이밍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더구나 이들 장기 집권 철권 독재자는 반독재 시위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못돼 큰 저항 없이 모든 권력을 내려 놓았다.

또한, 아랍 국가들의 저성장과 부정부패는 제 3세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점이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들은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강권기구를 복원하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견제하고 시민들을 배제시켰다. 이는 탈식민국가의 공통된 특징이다(Moore 1966, Rueschemeyer et al 1992). 토착 부르주아 계급과 다원주의의 부재 속에 국가의 우위는 지속됐고, 근대화의 거대한 목표 아래 국가의 권력은 더욱 커졌다. 소수 엘리트가 장악한 국가는 석유나 외부 원조의 지대에 의존했고, 국가의 행정 역량, 정권의 정당성, 은행과 재정기관의 신용도는 바닥을 밑돌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왜 유독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만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랍의 봄’ 혁명의 발생지인 튀니지는 아랍 세계에서조차 비교적 부유한 나라에 속하며, 경제 위기와 무능한 정부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알제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다.

SNS 활성화 역시 아랍 혁명의 다양한 사례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 2011년 초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독재 혁명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모로코, 요르단, 바레인, 알제리, 모로코, 오만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활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의 권위주의 산유왕정에서 가장 활발했다. 혁명으로 장기 독재자를 몰아낸 국가들 내에서도 혁명과 SNS 활성화 변수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아랍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을 보면 튀니지와 이집트는 중위권에 해당하나, 리비아와 예멘의 순위는 매우 낮았다. 휴대폰 보급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페이스북 가입율의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었다. 반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걸프 산유 왕정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과 휴대폰 보급율, 페이

스북 가입을 순위는 상위권에 속했다(Henry 2013, 장지향 2016a).

II.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과 샤 왕정의 몰락

1953년 이란의 팔레비(Mohammad Reza Pahlavi)는 미국 CIA가 지원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2차 세계대전 후 첫 민주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총리가 된 모사덱(Mohammad Mosaddegh)을 몰아낸 것이다. 석유 국유화 운동을 이끌던 모사덱은 민족전선(National Front)을 결성해 좌파와 이슬람주의 세력까지 손을 잡고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했다. 민족전선이 공산주의 투데당(Tudeh Party)과도 협력하자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이란에 미치는 것을 두려워해 쿠데타를 지원했다. 팔레비 왕조의 2대 샤는 혁명으로 물러날 때까지 25년 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고, 비밀경찰 사바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일삼았다(Skocpol 1994).

사바크는 샤의 직속 정보 기관으로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을 일삼고, 샤 체제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았다. 사바크에는 15,000명의 정규 요원과 수천 명이 넘는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사바크 창설 이후 이란 내 정치범의 숫자는 30,000 여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졌고 매년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란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비난했다. 사바크의 국장은 부총리 급이었고 고위 간부는 군 출신이었다. 샤는 사바크 내부에 또 다른 정보국을 두어 사바크 자체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바크를 감시하는 정보국은 샤의 거처인 니아바란 궁에 본부를 뒀고, 국장은 샤의 어린 시절 친구인 파르두스트(Hossein Fardust) 장군이 맡았다(Boroujerdi 1996). 이 모든 것이 쿠데타에 대한 샤의 편집증적 공포 때문이었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샤는 쿠데타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강권기구를 대폭 강화했고, 미국산 무기 구입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했다.

사바크는 여러 암살 의혹도 받았는데, 호메이니의 장남과 이슬람 혁명 이론가 샤리아티(Ali Shariati)의 갑작스런 죽음에 사바크가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Milani 1994). 1977년 아버지와 함께 이라크 나자프에서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의 장남 모스타파(Mostafa Khomeini)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사바크에 의한 독살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같은 해 샤리아티도 런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많은 이들이 사바크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샤리아티는 1970년대 초 프랑스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후 이란으로 돌아와 마르크

스 이론과 이슬람을 결합한 이슬람 혁명론의 창시자로 주목 받고 있었다. 1974년 샤리아티는 이란자유운동(Freedom Movement of Iran)을 조직한 혐의로 18개월 간 투옥됐고, 석방 후 런던으로 활동지를 옮겼으나 갑자기 사망했다.

1. 철권통치자 샤의 유화책

샤는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게 폭발한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다. 당시 암에 걸려 몸과 마음이 황폐했던 샤는 유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사력을 다해 정권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1978년 들어 대학생 시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자 샤는 6월 사바크의 국장을 교체했고, 8월엔 총리마저 종교계와 친분이 있는 온건한 인물로 바꿨다. 종교계를 달래기 위해 카지노를 폐쇄했고, 기년법을 이슬람력으로 되돌렸으며 투옥된 성직자 일부를 석방했다. 이어 국가화해위원회를 급조해 민족전선 지도부에게 도움을 청한 후 일당제 폐지와 다당제 실시를 선언했다(Chehabi 1990).

그러나 9월 군이 평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한 ‘검은 금요일’ 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은 견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10월부터 석유회사를 포함한 국영기업과 의료, 교육, 언론계의 전국 총파업이 뒤따랐고, 사바크 해체와 정치범 석방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샤는 왕실부 장관을 해임했고, 총리 교체 석 달 만에 또 총리를 바꿨다(Ansari 2003). 1965년부터 1977년까지 12년 간 샤 정권의 총리는 호베이다(Abbas Hoveyda) 한 사람이었으나, 1978년 이후 샤 체제의 붕괴 직전까지 18개월 동안에는 총리가 4번이나 잇따라 교체됐다.

잇단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시위가 국정을 마비시키자 11월 초 샤는 대국민 담화에 서 민주화를 위해 시위대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고위급 관료와 강경 엘리트 6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샤의 어릴 적 친구이자 사바크 3대 국장인 나시리(Nematollah Nassiri)도 포함됐다. 나시리는 대표적인 강경파로 1963년 아슈라 봉기 사건으로 호메이니가 체포되었을 때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주장했고, 1978년 봄 시위가 확산돼갈 때 강경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샤가 떠나고 황실근위대와 몇몇 장군들이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을 때 나시리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Kurzman 2004). 샤가 이란을 떠나기 한달 여 전 아자리(Gholam Reza Azhari) 총리는 설리반(William H. Sullivan) 주 이란 미국 대사를 만나 당시의 모든 혼란이 샤의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되고 있으니 미국 정부가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그쳤다(Mousavian and Shahidsaless 2014).

단호함을 잃고 당황하는 샤의 태도는 주변에 정권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졌다. 엘리트와 시위대에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측근 엘리트는 자신의 살길을 찾아 해외로 도주했고, 시위대는 호메이니의 대형 사진을 앞세우며 샤의 즉각적인 퇴진을 더욱 거세게 요구했다. 게다가 1977년 새로 취임한 카터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정부가 묵인했던 이란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자 샤의 권력 약화설은 급속도로 퍼졌다. 결국, 샤는 1979년 1월 치료를 핑계로 이란을 떠났다.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조금도 버텨보지 않은 채 이집트로 피했다. 샤는 국내 권력 자원이 크게 약화되기도 전에 미국의 후원이 사라지자 저항을 쉽게 포기해 버렸다.

2. 빠르게 흔들리는 샤의 엘리트

샤의 유약한 태도는 민심을 달래지도, 엘리트를 결속시키지도 못했다. 샤는 민족전선 출신의 바흐티아르(Shapur Bakhtiar)에게 총리직을 맡긴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이란을 떠났다. 샤가 허둥거리며 강경책을 수정하고, 시위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상류층 엘리트 역시 지체 없이 재산을 챙겨 이란을 떠났다. 샤가 이란을 떠난 직후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렸던 보안군 사령관 오베이시(Gholam Ali Oveisi)는 프랑스, 8월 해임된 아무제가르(Jamshid Amouzegar) 총리, 11월 해임된 에마미(Jafar Sharif-Emami) 총리, 11월 임명된 아자리 총리는 미국으로 떠났다. 역설적이게도 강경 엘리트들은 샤가 국면 타개용으로 쓴 책임자 처벌 정책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다(Zabir 2012).

아직 남아있던 엘리트 사이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나타났다. 샤는 강경 충성과 사바크 엘리트를 최 측근으로 완전히 포섭한 반면 온건파를 배제했다. 결국 온건 엘리트는 정권에 등을 돌렸고, 이슬람 혁명 직후 모두 이란을 떠났다. 샤의 배타적 후원망은 성직자인 이슬람 법학자 율라마(ulama) 가운데 급진파의 정당성을 높이면서 체제 내 온건파뿐만 아니라 반체제 온건파 엘리트를 약화시켰다.

군부는 정권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재빨리 독자 행보를 결정했다. 가라바기(Abbas Gharabaghi) 육군 참모총장과 장성 25여 명이 모여 군의 중립화를 선언하자 장교들 대부분이 혁명 세력에 투항했다. 최정예 엘리트 집단인 공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내부 반란이 일어났고, 많은 수가 투항했다. 군의 투항은 지배 엘리트의 분열과 시위 강도의 폭발적 상승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고위급 장교들 모두가 샤의 충복은 아니었다. 쿠데타의 두려움에 시달리던 샤가 군부 전체를 사바크 감시 하에 두자 군의 불만은 높았다. 또한, 대령급 이상 장교들은 샤의 사적 후원망 하에서 호화생활을 누렸으나 중간급 이하 지휘단은 그렇지 못했다. 더불어 90% 이상이 자원병으로 이루어진 공군과 달리 육군의 대부분은 징집병이었는데 이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다(Moaddel 1992). 상급 지도부가 호화스런 서구식 생활을 누렸던 것에 비해 일반 사병은 여전히 전통 가치를 중시했고 문맹률이 절반에 달했다.

물론 샤가 이란을 도망치듯 떠난 후에도 극소수의 강경 엘리트는 정권 수호를 위해 남아 있었다. 강경 충성파는 독재자와 함께 최후를 맞더라도 탈출을 거부하는 내부 핵심 세력이다. 몇몇 장군들은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와 체제 몰락이 확실해질 때까지도 왕정 복귀 쿠데타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중간급 장교들이 혁명 세력에 투항하면서 사전에 발각됐다. 결국, 살아남은 소수 충성파는 모두 처형됐다.

3. 성직자 전위그룹과 반샤 시위의 확산

이란 혁명에서 이슬람 성직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를 이끌었다. 많은 이들이 사바크 요원에게 붙잡힌 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혁명을 초기에 조직하는 데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무장한 소수의 전위그룹이 필요하다. 소수 종파인 시아파 이슬람은 부패한 권위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며 종교 지도자를 국가의 경쟁자로 간주한다(Burns 1996). 시아파에서 율라마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은 수니파보다 훨씬 강력하다.

급진 율라마들이 순교를 마다 않는 전위그룹에 속했다. 이들은 군과 비밀경찰의 물리적 폭압에 맞섰고, 이러한 영웅적 행위는 도시 공동체의 저항 확산에 촉매제가 됐다. 물론 바자르와 이슬람 공동체처럼 폐쇄적이고 촘촘한 네트워크 역시 보안이 강조되는 초기 시위의 조직화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급진 성직자 엘리트는 시위를 선도하며 광범위한 반체제 연합을 이끌었다. 부패한 독재자의 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성직자와 신학교 학생, 바자르 상인과 수공업자, 공산주의 투데당을 포함한 좌파 연합, 대학생과 중간 관료층이 중심이 된 세속 자유주의 그룹이 함께 모였다. 당시 이란 시민운동은 모사택이 결성한 다양한 정파의 연합체 민족전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혁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직자 전위그룹은 전통 가치와 이슬람에 친화적인 중하층 시민들을 적극 동원했다. 모스크, 이슬람 법원, 복지 재단 등 일상에서 접하는 기관들이 거점이었다. 반면 서구식 정치 시스템에 기반한 권력 분산을 강조하는 좌파와 세속 자유주의 세력은 대중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급진 올라마가 시위를 이끌면서 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승했고, 시위 참여자의 수도 점차 증가했다.

4.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1979년 1월 16일 샤가 떠났고, 2월 1일 호메이니가 15년의 망명생활 끝에 돌아왔다. 군의 중립화 선언 이후 정치인과 관료들이 줄이어 호메이니의 혁명 임시정부에 충성을 선언하자 샤 체제는 끝났다. 이후 혁명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급진 올라마들은 좌파와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뿐 아니라 온건 성직자 세력을 제거했다. 중립화 선언을 이끌었던 가라바기 참모총장은 강경파가 득세하자 프랑스로 망명해버렸다.

다양한 혁명 세력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식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성직자들은 이슬람 공화국, 좌파와 자유주의 세력들은 민주 공화국을 주장했다.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급진 올라마들은 이슬람 공화국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강행했고 99%의 지지를 얻었다. 4월 1일 호메이니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슬람공화국의 헌법은 호메이니의 주장에 따라 올라마의 통치를 기초로 삼았고 대통령과 의회의 권위를 종교 지도자 아래로 종속시켰다.

III. 2011년 아랍의 봄 혁명과 튀니지·이집트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튀니지, 이집트는 근대국가 수립 이래 비대해진 국가기구와 위축된 시민사회의 비대칭적 조합을 이어왔다. 1956년 튀니지가 프랑스에서 독립하고, 1922년 이집트가 영국 보호령 지위에서 벗어난 후 이들 신생국가는 식민지배 시기에 만들어진 내부 관료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군대와 비밀경찰로 무장한 국가 권력을 견제할만한 사회 세력은 없었고, 권위주의 정권과 후원관계를 맺은 소수 특수계층만 성장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자본가나 국가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직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동맹 세력으로 활동하며 특혜를 부여하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했다.

튀니지 독립운동을 주도한 네오 데스투르(Neo Destour) 당원들은 독립 이듬해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부르기바(Habib Bourguiba)는 일당 독재를 심화시켰고, 1975년 종신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1987년 벤 알리 당시 총리가 무혈 쿠데타로 건강이 악화된 부르기바를 축출했다. 새 대통령은 복수정당제 도입, 정치범 석방, 언론규제 완화 등의 유화책을 실시했으나, 1992년 첫 민주 총선에서 엔나흐다(Ennahda) 이슬람 정당이 압승을 거두자 선거를 무효화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야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부르기바 시절보다 더 혹독한 공포정치를 펼쳤다. 2002년 벤 알리는 대통령 종신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제도화했다.

벤 알리는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이 아닌 경찰을 비대하게 키웠다. 벤 알리 정권은 어른 40명당 경찰 한 명을 배치하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발전시켰다. 또한, 집권당 입헌민주연합(Constitutional Democratic Rally)의 공식 당원을 2십만명까지 늘려 전체 인구의 2%가 집권 단일정당에 소속됐다(Bellin 2002). 벤 알리의 아내는 온갖 비리에 개입했고, 23년 집권 기간 동안 형제와 가족 10명을 요직에 앉히면서 권력의 사유화를 공고히 했다.

한편, 이집트가 왕국으로 독립한 이듬해 자유 민족주의 와프드(Wafd) 당원들은 입헌군주제와 내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영국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1952년 나세르(Gamal Abdel Nasser)가 이끄는 자유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56년 나세르는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아랍 민족주의와 비동맹 독자노선을 주장하며 영국군의 완전 철수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이뤄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대패하자, 나세르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이후 급사했다. 1971년 자유장교단 출신이자 부통령이었던 사다트(Anwar Sadat)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이집트 우선주의, 친서방 외교, 시장주의 지지와 이스라엘 인정을 선언하자 이슬람주의 세력의 반대가 거셌다.

1981년 사다트가 급진 이슬람주의자에게 암살되자 부통령 무바라크가 대통령직을 이어받고 이집트 전역에 계엄령을 내렸다. 무바라크는 30년 집권 기간 내내 계엄령을 유지하며 공안정국을 이어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무바라크 정권 하에서 행해지는 불법감금과 고문을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특히 무바라크 정권에 가장 위협적인 재야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2005년 무바라크는 단독후보 직선제를 통해 5선 대통령이 됐고,

2011년 혁명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둘째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세습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1. 당황한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강경책 철회

시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분노 앞에 튀니지와 이집트의 장기 독재자는 허둥댔다. 바로 강경책들을 철회하고 주변 엘리트들을 처벌했으나 성난 여론은 더욱 퍼져나갔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시디부지드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던 청년 실업자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부패 단속 공무원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했다. 사촌이 올린 SNS 동영상으로 분신 장면을 접한 시디부지드 시민들은 바로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속출했다.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고, 10일 후 수도 튀니스에서도 대규모 시위와 정부 청사 공격이 이어졌다. 이에 벤 알리는 서둘러 부아지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고 통신부, 무역부, 종교부 장관들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던 도시 3곳의 시장들을 잇달아 해임했다(Naar 2013).

2011년 1월 4일 부아지지가 끝내 숨지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벤 알리 정권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러나 튀니지 전국 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하고 변호사와 교사 8,000여명도 이에 동참하자 벤 알리 퇴진 운동은 지역과 계층을 넘는 국민 운동으로 확산됐다. 벤 알리 정권의 오랜 우방인 프랑스 정부마저 시위대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선언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1월 12일 벤 알리는 카셈(Rafik Belhaj Kacem) 내무부 장관을 해임했고, 다음날 새벽 대국민 사과 연설을 TV 생방송으로 보냈다. 연설에서 2014년 대선 불출마, 6개월 내 총선 실시, 언론 검열 폐지 등의 정치개혁 실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군부는 중립을 선언했다. 결국 바로 다음날 벤 알리는 부아지지의 분신 28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망명길에 올랐다. 군부는 개인 비행장에서 전용기로 탈출하던 벤 알리와 가족의 이륙을 허가해줬으나 튀니스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주를 시도하던 측근 엘리트와 친인척들을 모두 검거했다.

벤 알리의 축출 소식이 알려지자 튀니지와 비슷한 장기 권위주의 독재가 유지되던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 퇴진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반정부 재야 연대는 1월 25일을 국민 총궐기의 날로 선포했고, 카이로에만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위대의 폭발적인 분노에 무

바라크는 당황했다. 무바라크는 1월 29일 자정 직후 내각의 즉각적인 해산과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집권 32년만에 처음으로 부통령직을 만들어 정보국장 출신 술레이만(Omar Suleiman)을 앉혔다.

그러나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반무바라크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변호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군부는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 지지를 발표했다. 2월 1일 무바라크는 국영TV 연설에서 7개월 후 예정된 대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4일 후 무바라크의 아들을 포함한 집권 민족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의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와디 알자디드 주의 중소도시들에서 시위대 발포를 명령한 경찰서장들이 구속되고 보안청장이 해임됐다. 이어 공무원 임금 15% 인상이 발표되고 정치범 35명이 석방됐다(Beissinger, Jamal, and Mazur 2015).

하지만 국민 총궐기의 날 선포 18일 만인 2월 11일 술레이만 부통령은 군 최고위원회로 정권 이양을 발표했고, 무바라크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당일 무바라크와 가족은 대통령 궁이 있는 카이로를 떠나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로 피신했다. 무바라크 일가의 스위스 은행 계좌와 부동산이 동결됐고, 무바라크 정권에서 복무했던 장관 3명의 출국과 재산 동결도 이어졌다.

2. 튀니지·이집트 엘리트의 선택: 독재자와 거리 두기

반정부 시위 발발 후 벤 알리와 무바라크는 우왕좌왕했고, 독재자에게 모든 걸 의지하던 엘리트는 이 변화를 판단의 근거로 빠르게 이용했다. 독재 유지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독재자의 정권 수호 능력과 의지에 대한 엘리트의 믿음이다. 정권의 생존과 독재자의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계산하던 튀니지와 이집트 엘리트는 결국 독재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튀니지 전역으로 반독재 시위가 확산돼도 벤 알리가 단호한 저항 의지를 보이지 않자, 엘리트 내부에서는 불안이 급속히 퍼져갔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정부마저 벤 알리에 대한 지지를 거두자 독재자의 권력이 약화됐다는 상호 믿음이 확산됐다. 1월 12일 아침 벤 알리는 튀니스 거리 곳곳에 군을 배치하고 무력진압을 명령했다. 경찰과 비밀 정보국 요원들은 이미 폭력진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마르(Rachid Ammar) 육군 참모총장은 발포 명령에 불복하면서 군 철수 명령을 내렸고 바로 가택연금을 당했다. 당황한 벤 알리는 즉각 대국민 TV 연설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으나 이미 군부 중립화 선언이 파

다하게 알려진 후였다. 대세는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벤 알리가 사우디로 떠나고 군은 복귀했다.

군부는 벤 알리 집권 시절 국내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독재자가 공들여 키운 경찰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 여타 독재자처럼 쿠데타를 두려워한 벤 알리는 군부를 대폭 축소 관리했다. 경찰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엘리트 지배연합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했고 군부는 독재자의 사적 후원망에서 소외됐다. 독재자에게 홀대 받던 군부는 다른 강권기구들과 달리 전문직업주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Brooks 2013).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점차 열어지자, 당시 수상이었던 간누치(Mohamed Ghannouchi)는 새로운 통합정부를 위해 임시 대통령직을 맡겠다고 나섰다. 국회의장을 지내고 집권당에서 활발히 활동한 벤 알리의 최측근 메바자(Fouad Mebazaa)도 시위대 진압명령에 반대했다고 강조하기 시작했고 탈당을 선언했다(Beissinger, Jamal, and Mazur 2015).

이집트에서도 군부의 발 빠른 계산이 눈에 띄었다. 1월 26일 무바라크가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군 투입을 결정했지만 군부는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군부는 오히려 31일 국민의 합법적 요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 60년간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자 이집트 경제 이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실세였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에겐 집단이익이 우선했다. 결국, 무바라크는 군부와 미국이 돌아선 지 2주가 안 돼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후 탄타위(Mohamed Hussein Tantawi) 국방장관이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군부가 조직적으로 탈무바라크 공백기를 메워 나갔다.

독재자는 엘리트의 집합행동에 매우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무바라크가 보여준 혼선은 이집트 엘리트 정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크게 약화시켰다. 무바라크가 조금이라도 결연한 의지와 확신의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군부 엘리트 내 협력을 도울 수도 있었다. 독재자를 향한 시민의 격렬한 분노와 독재자의 유약함을 확인한 지배 엘리트는 무바라크 포기라는 선택을 했다.

3. 튀니지 지방 노조원과 이집트 인터넷 활동가의 시위 선도

튀니지의 지방 노조원과 이집트의 인터넷 활동가들이 시위를 이끌며 저항의지를 강하게 보이자 시위대의 규모는 점차 커졌다. 혁명에 거는 기대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

문에 굳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소수 시위 선도층의 기대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위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뛰어넘는다는 주관적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튀니지에서는 지방의 평노조원들이 시위를 선도했다. 튀니지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총연맹(General Tunisian Workers' Union)의 지부 가운데 부아지지의 분신이 일어난 시디부지드와 주변 도시의 노조원들이 시위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동총연맹의 상급 지도부는 벤 알리 정권의 후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했지만 일반 조직원의 입장은 달랐다. 특히 지방의 노조원들은 독립적이지 못한 지도부에 불만이 높았고,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 경제상황을 들며 파업을 종종 주도해왔다.

따라서 지방 노조원들은 비밀경찰의 체포와 고문을 자주 겪었던 탓에 시위를 이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덜했다. 시디부지드 지부의 조직원들은 부아지지가 분신한 당일부터 적극적으로 시위를 이끌었고, 수도권에서 소외된 다른 지방의 조직원들도 적극 동조했다.

노동총연맹의 지방 평노조원들이 벤 알리 퇴진 운동을 시작하자 변호사 연맹, 대학생 연합회, 교원 노조와 여러 인권운동 조직이 반독재 시위에 동참했다. 벤 알리의 망명 이후 이들은 국민대화(Tunisian National Dialogue Quartet)를 설립해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세력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섰다. 국민대화는 조기 헌법 제정과 총선 실시의 합의를 끌어냈고, 이러한 노고로 201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튀니지, 이집트의 노조는 권위주의 정권이 관리하는 어용조직으로 유명했다. 아랍의 봄 혁명 발발 당시 두 국가는 아랍 세계 내 폐쇄적 독재국가인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에 비해 개방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다. 벤 알리와 무바라크 정권은 1990년대 중반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 제한적이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이때 튀니지에서는 노조들이 여럿 생겨났다. 벤 알리 정권은 갑자기 늘어난 노조원들을 독재자의 후원망으로 편입시키려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Bellin 2002). 반면, 무바라크 정권은 노조의 하부조직을 무리하게 키우지 않고 기존의 후원체계를 공고히 했다. 따라서 이집트의 최대 노조인 노조연합(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은 시위 기간 내내 관변단체로 남아 있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세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적극 이용한 젊은 인터넷 활동가들이었다. 튀니지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연결망을 독점 관리하고 비밀경찰 내에 SNS

검열 부서를 따로 운영했으나, 이집트에서는 SNS 망이 훨씬 느슨하게 퍼져있었다(Kerrou 2013). 이집트의 인터넷 활동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시위들과 경찰의 폭력 진압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면서 시위를 선도했다.

독재의 공포정치 하에서도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을 제공하는 SNS는 활동가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며 시위를 선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반 대중에게도 인터넷 네트워크 속으로 모이는 것은 가두 시위보다 더 안전했다. 물론 인터넷 담당 비밀경찰은 국내 도메인의 정부 비판 내용을 검열, 삭제했고, 게재자들을 체포했다. 인터넷 카페 안으로 비밀경찰들이 들이닥쳐 SNS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을 불법 연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인터넷 활동가의 선도로 모인 시위대 구성원은 매우 다양했다. 이슬람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를 비롯해 광범위한 반정부 세력이 무바라크 퇴진의 구호 하에 모였다.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들부터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들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이스마일파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자 1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에 당국은 전국의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최대 수용인원 25만 명을 넘었고 저녁 무렵엔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이로 중심부에 집결했다(Naar 2013).

4. 아랍의 봄 혁명 이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의 반독재 혁명이 일어났으나, 아주 다른 이행기가 뒤따랐다. 튀니지에선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다원주의의 제도화가 공고화됐다. 엔나흐다당은 이슬람 정당임에도 여성 의원 수를 절반에 가깝게 대폭 늘리는 등 당내 민주화와 정치권리의 확대를 위해 애썼다. 엔나흐다당 여성 의원들은 의회뿐만 아니라 주요 시민단체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이집트에서는 군부가 혁명 이후 첫 민주정부를 집권 1년 만에 쿠데타로 몰아내고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군부의 과도정부 시기 때부터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는 높았다. 군 최고위원회는 신헌법 제정 시 군부의 거부권 행사장치를 여러 군데에 마련해뒀다. 또 첫 민주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이 승리하자 의회 해산명령을 내렸고 열흘 후에야 공식 결과를 발표했다.

혁명 이전 튀니지와 이집트는 여러 중동 국가들 가운데 위압적 권위주의 국가군으로 동일하게 분류됐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최대 야당조직인 엔나흐다당과 무슬림형제단은 모두 온건 이슬람 정당이었다. 차이는 강권기구에 있었다. 이집트는 군부가 힘과 영향력 면에서 경찰을 압도했기에 강권기구 간에 알력다툼이 거의 없었다. 반면 튀니지의 군부는 독재자의 전략적 혜택을 받아 새롭게 부상한 경찰에게 밀려 권력에서 갑자기 배제됐다. 하지만 세력전이의 시기는 20년에 불과했고, 군은 독재자에 반하는 중립화 선언으로 경찰과의 권력 싸움에서 이겼다.

민주주의의 장애물은 어디든 비슷하다. 그러나 혁명의 결과는 각 나라가 갖고 있던 기존의 권력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독재를 무너뜨린 혁명과 이후 민주주의의 안착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이유이다. 혁명은 독재자가 한 순간 장악력을 놓칠 때 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IV. 북한 정권 미래의 불가측성: 여론 부재와 독재의 극적 붕괴

1970년대 이란, 2010년대 튀니지와 이집트 사례에서 보듯이 독재의 공포정치가 만들어 낸 안정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시민의 불만을 위에서 억누르고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처럼 유일 주체사상이 장악하는 감시체제 하에서 여론은 존재할 수 없다. 여론의 부재와 왜곡으로 인해 김정은과 측근 엘리트가 지지 기반의 취약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 정권 생존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사회 구성원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독재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 공포정치 하에서 그랬듯이 억눌려왔던 여론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분출되면 파괴적인 폭발력을 갖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통제가 심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깊을수록 불만 여론의 분출 여파는 돌발적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때 당황한 독재자는 오판을 하기 쉽다.

현재 북한은 물체의 상태가 바뀌기 직전의 매우 불안정하지만 겉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여론이 부재한 북한에서 김정은과 측근 엘리트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를 수 밖에 없다.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 몰락에서 보았듯이 이때 정권 수호에서 제

일 중요한 행위자인 독재자가 태도 변경을 시도할 경우, 그 결과는 통제하기 힘든 폭발력을 지니고 나타난다. 시스템이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압박을 간신히 지탱하는 상황에서 체제의 운명이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있을 경우 그 개인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에도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장지향 2016b).

물론 북한과 중동의 독재는 다르다. 이란의 샤,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 체제는 권위주의 독재였다. 이란과 튀니지의 독재자는 늘 쿠데타 가능성에 노심초사했고, 소수 강경 충성파로 비밀경찰을 조직해 군부를 감시했다. 이집트의 독재자는 군부의 집단 권력이 워낙 강했기에 권력의 사유화와 일인지배 정도가 조금 덜했다. 세 나라의 시민 사회에는 종교계, 전통 상인과 수공업자들, 좌파 조직, 세속 자유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반면 북한은 3대 세습으로 이어온 단일체제 하에 유일사상을 강압하는 전체주의 독재이다. 권위주의는 파편화되고 중복된 구조인 반면 전체주의는 획일화된 지휘체제로 이뤄져 있다. 김정은 정권은 평양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특권층만으로 체제 내구성을 유지하며,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짧은 지휘 체제 하에서 주민의 완전 통제를 목표로 한다.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을 포함한 강권 기구들의 실질적 지휘자가 김정은이다(Jang and Lee 2014).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 튀니지, 이집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독재 국가이다. 1972년부터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를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래 북한의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지수는 단 한 차례도 변한 적이 없다. 아무리 독재라도 권력의 이양기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대중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시도한다. 하지만 1994년과 2011년 두 번의 세습 과정에서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Jang and Lee 2014).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경제 시스템은 외부와 연결돼 국제사회의 압박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샤 체제의 경제구조는 석유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대추구 시스템이었다. 무바라크 하의 이집트 역시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 수익, 걸프 산유왕정에서 이집트 노동자가 송금하는 임금, 미국의 원조 등 지대수익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 알리 시기의 튀니지 경제는 관광업에 지나치게 집중했다. 이처럼 단기 수익성에 치중한 단일 산업이나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유가 변동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반면 북한의 경제구조는 지극히 폐쇄적인 내수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다. 물론 비효율적 생산구조로 자원은 고갈됐고 공급체계가 몰락해 심각한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지속적 고통이며 갑작스런 충격은 아니다.

중동 독재자와 북한 김정은은 무엇보다 대외관계 면에서 가장 다르다. 권위주의 독재의 운명은 외부 후원자에 의해 종종 좌우된다. 독재자가 외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지해 국내 동원에 소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한다. 샤, 벤 알리, 무바라크는 외부 후원자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내부 후원망을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샤의 대외관계는 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였다. 샤는 CIA가 지원한 쿠데타덕분에 모사택이 이끄는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절대군주로 군림했다. 모사택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과도 연합하자 아이젠하워 정부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해 이란 내정에 개입했다. 1953년 쿠데타는 샤에게 대미 종속의 족쇄, 이란 국민에겐 반미 감정의 뿌리가 됐다. 샤는 소련 봉쇄를 위한 미군 주둔과 방위 동맹, 미국산 무기 구입, 미국 주요 석유회사들의 이권 확보와 안정적 원유 제공에 힘썼다. 이 정책은 동맹국과의 공조가 아닌 미국을 향한 과도한 충성심에 가까웠고, 주권국가의 수장에게 큰 약점이었다. 결국 후원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샤 체제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자 샤는 당황했고 측근 엘리트는 미래에 대한 계산에 재빨리 들어갔다.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대외관계 역시 미국과 프랑스의 전폭적 후원으로 요약된다. 이들 독재자의 과도한 친서구 정책은 정권 정통성에 큰 결함이었다. 특히 이집트는 미국의 우방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립구도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호해왔다.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뺏긴 시나이 반도를 미국의 중재로 1978년에 돌려받으면서였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아랍 공화국들의 반미 입장이 압도적이었을 때에도 이집트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지원을 받던 이라크를 옹호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적극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중동의 독재와 달리 북한은 중국에 완전히 기대고 있지 않다. 주체사상에 기반 한 북한의 자주노선은 오히려 외세 요인의 개입을 차단해왔다. 북한 정권은 항일 빨치산 투쟁을 건국의 토대로, 반미 주체사상을 국가 통합의 이념으로 삼았다. 중국, 소련과 유지하는 약간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고립주의와 주체

사상의 강조로 인해 외부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 북한 정권은 중소분쟁을 가까이 지켜보며 국내에서 권력을 철저히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각했다. 이에 주체 발전노선에 따라 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외부 개입을 억지할 수 있게 됐고 내부적으로도 무자비한 숙청과 착취를 통해 정권의 내구성을 강고히 한 상태이다. 물론 중국의 적당한 후원 역시 북한 정권을 돕는다. 한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습 독재의 특성상 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이지만 워낙 폐쇄적이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오히려 자율적이다(장지향 2016b). 북한이 겪는 외교적 고립은 국가의 약점일 수 있으나 세습 정권의 생존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은 정권의 버티기 전략은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이란, 튀니지, 이집트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시위가 즉각적으로 조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일체제에 기반 한 북한에서는 불만을 조직할 수 있는 체제 반대 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중동처럼 도시를 거점으로 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불만을 조직하는데 있어 저항 이데올로기와 상징적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대안이 존재한다는 인식 자체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 감시와 통제를 이완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새롭게 부를 키워가는 장마당 상인, 무역상, 해외 노동자 계층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도시가 아닌 지방을 거점으로 분포해 있다.

게다가 현 엘리트에겐 개혁개방에 대한 유인 요소도 낮다. 북한에는 높은 군사력과 빈곤한 경제가 역설적으로 공존하지만 체제 자체는 공고화됐다.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는 주체 사회주의 발전 전략을 통해 군사력과 행정 역량을 키웠다. 중소분쟁을 목격하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법도 배웠다. 즉 북한의 지배 세력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내부의 저항에 과감히 대처하며 정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북한처럼 물질적 조건이 열악한 경우일수록 엘리트의 주관적 믿음은 더욱 중요해진다. 자신의 특권과 정권의 미래가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있다. 이들에겐 현재로선 상황을 변화시킬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선불리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재의 공포정치로 인한 여론 부재는 갑작스런 정권 몰락의 결정적 원인이다.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에서 나타난 엘리트의 자율성 약화와 여론의 왜곡은 북한 체제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소수 정예 친위부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들 최측근 엘리트는 막대한 정치, 경제 권력을 누리며, 다른 엘리트들을 감시한다. 이들은 3대 세습 독재의 생존을 위해 군부 내 다층의 정보라인을 운영하고 쿠데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여타 독재와 마찬가지로 이들 엘리트는 전문 직업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 세습 독재 정권이 구축한 소규모 지배연합은 온건 엘리트를 말살시켰고, 사회 내 반대 세력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즉 정권에 대한 올바른 여론이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 몰락 과정과 비슷하게 북한에서도 체제 붕괴를 이끌 결정적 요인은 독재자가 될 것이다. 돌발적 계기로 반체제 여론이 분출되면 김정은은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불만에 당황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태도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샤 체제 붕괴의 결정적 요인은 샤의 비밀관적인 정책 변경이었다.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갑작스런 유화책 실시와 이중적 태도 역시 체제 몰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돌발적 태도를 보여 온 김정은이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목표와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인다.

이때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여타 경우와 비슷하게 견잡을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정권 유지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자인 독재자가 지나친 과욕을 부리거나 변화를 시도할 경우 통제하기 힘든 결과가 나타난다. 독재자의 유약함도 문제이지만 독재자의 과욕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는 주변 엘리트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독재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예고 없이 갑작스레 붕괴할 것은 확실하다.

김정은이 어떤 이유로든 개선이나 변화를 목표로 삼을 경우 북한 체제는 붕괴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정통성 강화를 위해 ‘할아버지 따라 하기’에 집착하거나 갑자기 아버지 수령의 따스함을 보여주려 할 때 엘리트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전해지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혹은 북한 수준을 스위스 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우길 경우 엘리트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김정은의 생뚱맞은 현상변경 시도는 정권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신호는 정권 수호를 위한 엘리트 간의 협력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미래는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엘리트의 확신에 달려 있다. 엘리트가 불안해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순간은 특별한 징조 없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북한의 불안한 균형을 무너뜨릴 요소는 내부의 지도자로부터 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뒤따르는 엘리트의 계산과 선택은 다른 독재와 마찬가지로 주변 엘리트의 선택에 대한 기

대에 달려있다.

북한의 엘리트는 지금도 독재자의 의도를 두고 끊임없이 손익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껏 김정은이 보여온 잔인한 숙청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엘리트가 정권의 몰락 과정에서 독재자와 운명을 함께 할 가능성은 낮다. 상호 의존적으로 눈치를 보는 구조 하에서 현재 드러나는 충성심의 강도는 크게 중요치 않다. 엘리트의 믿음은 언제라도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측근 강경파 엘리트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상호 눈치보기에 따라 정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북한 엘리트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향할 것이고 저항의 강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정권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믿음이 엘리트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 엘리트 대부분이 새로운 여론에 맞춰 연쇄적으로 빠르게 태도를 바꿀 것이다. 상사와 동료의 선택에 맞춰왔던 사람들은 여론의 변화에 따라 태도를 쉽게 바꾸기 마련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선 새로운 손익계산과 기대가 주변으로 신속하게 전파된다. 아직까지 북한 엘리트 다수는 북한 정권이 공고하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객관적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집단적 믿음은 공허하다.

나가며

이란, 튀니지, 이집트의 권위주의 독재자들은 미국과 프랑스에 지나치게 기댔고 외부 충격에 취약했다. 반면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철저한 고립주의와 주체노선을 내세워 외세의 개입을 차단해왔다. 외교적 고립은 북한 세습 독재의 생존을 도왔고 지속적 빈곤은 큰 위협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현재 북한 엘리트는 정권이 공고하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외부 자율성이 높고 엘리트에게 개혁개방의 유인 요소가 낮다고 해서 정권 붕괴의 가능성마저 낮은 것은 아니다. 중동의 독재 몰락에서 보듯 장기 독재는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극소수 지배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대다수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재 체제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많은 사람의 불만을 폭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가 정권의 취약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은 배가된다. 체제의 운명이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있는 3대 세습 독재도

마찬가지이다. 여론이 부재한 북한의 공포정치 하에서는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 시민 모두 지금의 상황이 정권 몰락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 혁명의 촉발 요인은 김정은에게서 나올 것이다. 폐쇄적 유일 체제 하에서 변화의 원동력은 독재자 개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우연한 계기로 여론 통제력을 잃을 경우 거센 저항이 확산될 것이고, 독재자는 이에 매우 당황할 것이다. 이때 참을성 없이 돌발 행보를 보여온 김정은이 현상변경이라는 자충수를 둘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3대 세습 독재자의 변화 시도에 측근 엘리트 간의 협력은 흔들릴 것이다. 맹목적 충성을 경쟁하던 북한 엘리트 전체가 불안해 하면서 변심과 이탈의 새로운 추세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결국, 세습 독재를 받치던 불안한 균형도 무너진다.

문제는 독재의 붕괴 이후이다. 이란과 이집트 혁명이 주는 교훈은 과연 붕괴 후의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더 나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란에서는 샤 체제의 붕괴 후 강경 올라마가 권력을 독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다. 호메이니와 올라마 세력이 좌파와 자유주의 혁명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자 급진 좌파는 암살과 폭탄테러로 맞서는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집트에선 쿠데타가 일어나 더욱 열악한 권위주의로 후퇴했고 사회 분열이 극심해졌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의 반독재 혁명이 일어났으나 아주 다른 이행기가 뒤따랐다.

이란과 이집트에서 나타났던 혁명의 부정적 결과들이 북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구정권의 붕괴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수록 혁명세력 간의 격렬한 충돌 가능성은 높아진다. 구체제의 군부나 강권기구 주도의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외부 세력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엔 한계가 있으며 외부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몰락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 엘리트와의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해 군부와 정보 보안기구 내의 엘리트에게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미래의 보상과 면책을 약속해야 한다. 비록 극소수이겠지만 특히 온건파와 신뢰 관계를 확보해 두어야 격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북한에 호메이니와 같은 저항의 상징이자 대안적 인물이 없다면 한국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과 민주주의가 대안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메시지는 단순할수록 좋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다

는 메시지가 북한 내에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란 혁명에서 호메이니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반제국주의를 내세웠고 단순한 구호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급진 무장세력 무자헤디네 할크(Mujahedin-e Khalq)마저도 초기 호메이니 세력에 흡수됐다.

세계 곳곳에 퍼진 탈북자 네트워크가 북한 내 시민사회 조직의 대안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 여러 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최근 북한의 인권침해를 직접 고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사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전선과 이란자유운동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사체제의 붕괴 직전 미국에서 이란 유학생 수만 명이 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거주 이란인들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붕괴가 일어난 직후 분파 갈등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호메이니는 오랜 망명생활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정통성을 유지했다. 그는 “서양도 동양도 아닌 오로지 이슬람”이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자신에게 망명지를 제공했던 프랑스에 대해서도 “미국은 거대한 사탄, 소련은 작은 사탄, 프랑스는 아주 작은 사탄”이라고 칭했다(Martin 2000). 우리는 북한 정권 붕괴의 초기 단계에서 특정 세력에게 정통성 결여라는 약점을 안겨줄 필요는 없다. 게다가 한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 다른 분파를 지지할 경우 분파 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참고문헌

- Ansari, Ali M. 2003. *Modern Iran Since 1921: The Pahlavis and After*. London: Longman.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eissinger, Mark R., Amaney A. Jamal, and Kevin Mazur. 2015. “Explaining Divergent Revolutionary Coalitions: Regime Strategies and the Structuring of Participation in the Tunisian and Egyptian Revolutions.”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48 (1).
- Bellin, Eva. 2002. *Stalled Democracy: Capital, Labor, and the Paradox of State-Sponsored Developmen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oroujerdi, Mehrzad. 1996. *Iranian Intellectuals and the West: The Tormented Triumph of Nativism*.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 Brooks, Risa. 2013. “Abandoned at the Palace: Why the Tunisian Military Defected from the Ben Ali Regime in January 2011.”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6 (2).
- Bueno de Mesquita, Bruce and Alastair Smith. 2009. “Political Survival and.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 (2).
- Burns, Gene. 1996. “Ideology, Culture, and Ambiguity: The Revolutionary Process in Iran.” *Theory and Society* 25 (3).
- Chehabi, H.E. 1990. *Iranian Politics and Religious Modernism: The Liberation Movement of Iran under the Shah and Khomeini*.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edited by Peter Hall and David Sosk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nry, Clement. 2013. “Political Economies of Transition.” In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edited by Clement Henry and Ji-Hyang Ja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ang, Ji-Hyang and Peter Lee. 2014. “Unknown Horror or Deliberate Indiffere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Syria.” *Asan Issue Brief* no. 2014-19.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
- Kerrou, Mohamed. 2013. “New Actors of the Revolution and the Political Transition in Tunisia.” In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edited by Clement Henry and Ji-Hyang Ja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eshavarian, Arang. 2007. *Bazaar and the State in I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an, Timur. 1995. *Private Truths, Public Lies: The Social Consequences of Preference Falsifi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urzman, Charles. 2004. *The Unthinkable Revolution in Ir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in, Vanessa. 2000. *Creating an Islamic State: Khomeini and the Making of a New Iran*. London: I.B. Tauris.
- Milani, Mohsen M. 1994. *The Making of Iran’s Islamic Revolution: From Monarchy to Islamic Republic*. Boulder: Westview Press.
- Moaddel, Mansoor. 1992. *Class,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Iranian Revolu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ore, Barrington Jr.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Morell, Michael and Bill Harlow. 2015. *The Great War of Our Time: The CIA’s Fight against Terrorism: From al Qaeda to ISIS*. New York: Twelve.
- Mousavian, Seyed Hossein and Shahir Shahidsaless. 2014. *Iran and the United States: An Insider’s View on the Failed Past and the Road to Peace*.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Naar, Ismaeel. 2013. “Timeline: Arab Spring.” *Al Jazeera* (December 17).
- Parsa, Misagh. 1989. *Social Origins of the Iranian Revolut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Rueschemeyer, Dietrich, Evelyn Huber Stephens, and John D.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cpol, Theda. 1994. “The Rentier State and Shi’a Islam in the Iranian Revolution.” *Social Revolutions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eb, Nassim. 2010. *The Black Swan: The Impact of the Highly Improbable*. New York: Random House and Penguin.
- Zabir, Sepehr. 2012. *The Iranian Military in Revolution and War*. New York: Taylor & Francis.
- 대니얼 카너먼. 2012. 『생각에 관한 생각』. 이진원 옮김. 서울: 김영사.
- 장지향. 2016a.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의 비교정치학적 분석: 혁명 발발의 불가측성과 민주화 성공의 구조적 요인.” 『한국 민주화운동 재조명 총서 1: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파주: 한울 앰플러스.
- 장지향. 2016b. “이란 핵 협상 사례 분석.” 『KINU 연구총서 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한병진. 2013. 『아산 리포트: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A S A N
R E P O R T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발행일 2018년 3월

지은이 장지향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92-8 93340 비매품



9 791155 701928 비매출
ISBN 979-11-5570-192-8